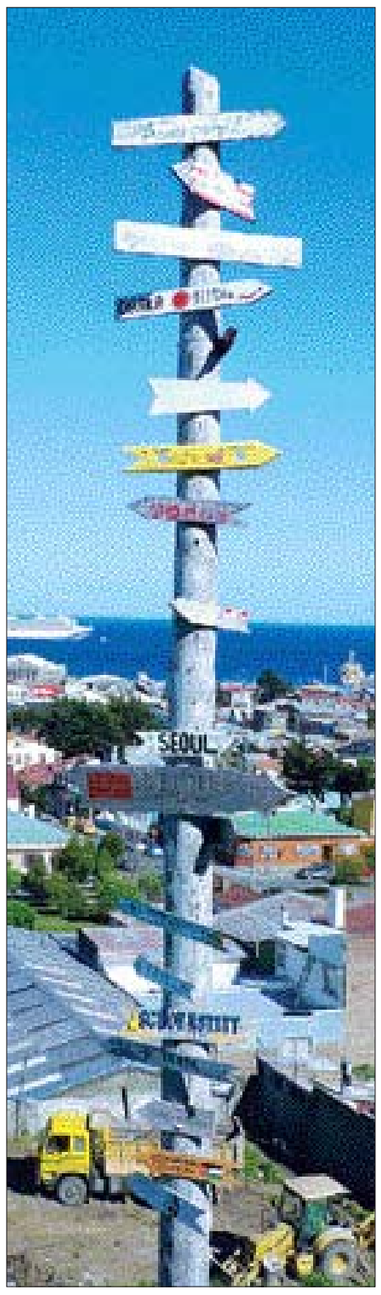
여기는 남극, 희망을 보았다

세계 최초 장애인 7대륙 최고봉 완등 동행 취재기

‘2008 빈슨 매시프 원정대’ 대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0시10분(현지시각) 남극대륙 탐사의 전진캠프인 패트리어트 힐에 도착해 자신들을 태우고 온 일루신 수송기 앞에서 성공적인 등반을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은 패트리어트 힐 도착 직후 텐트를 설치하고 있는 각 국 원정대원들.

기다림의 연속…神 허락없인 갈 수 없는 땅



남극 대륙으로 들어가는 전초기지인 남미 최남단 칠레 푼타 아레나스의 언덕에 세워진 이정표. 서울을 비롯 세계 각 주요도시까지의 직선거리가 표시돼 있다.

❸ 머나먼 대륙

남극 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바람이 강한 지역에 위치한 만큼 정상에 오르기까지 여타 대륙의 산과는 다른 몇 가지 난관들을 넘어서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편에 있는 지구의 끝자락이어서 거리가 가장 멀다. 왕복 기준 비행기만 열 번을 타야 한다. 비행거리는 4만7천500km로 지구 한 바퀴(약 4만km)를 훌쩍 뛰어넘는다.

더욱이 블리자드와 같은 강한 눈보라와 폭풍설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등반 기점인 베이스 캠프는 물론 대륙 안쪽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남미의 끝자락 푼타 아레나스에서 남극 탐험을 위한 유일한 캠프인 패트리어트 힐(Patriot Hills)로 들어가는 러시아제 수송기 일루신(Ilyushin)이나 베이스 캠프까지 이동 수단인 경비행기 트윈 오터(Twin Otter)는 청빙지대나 설사면에 그대로 내려앉기 때문에 바람 세기나 구름 및 눈의 상태에 민감하다. 이로 인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비행이 예정보다 1주일~10여 일씩 지연되는 것은 예사다. 최대 한 달 가까이 늦어진 팀도 있다.

비용 또한 개인적으로는 엄두를 내기 힘들다. 남극 항공 수송과 탐험을 총괄하는 유일한 대행사인 ANI(Adventure Network International)는 2008~2009 시즌을 기준으로 1인당 3만1천450달러를 요구했다. 여기엔 칠레 푼타 아레나스를 출발해 빈슨 매시프 등반을 마치고 다시 그 곳에 돌아올 때까지 경비만 포함된 것이다. 한국에서 푼타 아레나스까지 이동 비용과 현지 체제비는 빠져 있다는 얘기다. 달러당 1천400원을 오르내리는 최근 환율로 치면 1인당 5천만~6천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2009~2010 시즌의 경우 빈슨 매시프 등반이 3만3천450달러, 남극점 비행기 탐험의 경우 3만7천850달러를 내야 한다.(www.adventure-network.com 참조)

이 때문에 원정대를 꾸릴려면 스폰서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정상에 오르기 전에 스폰서의 마음부터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우리 팀도 김홍빈 대장이 지난해 7월 호주대륙 코지어스코(2,228m)를 등정한 직후부터 준비에 들어갔으나 경비 마련이 여의치 않았다. 대원 수도 줄여야 했다. 다행히 KTF와 광주시, 순천시, 금광기업, 순천메디팜재활요양병원, (주)에코로바 등이 불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에 나서 1년 반 만에야 남극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이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7대륙 최고봉 완등’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됐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남극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녀오기에는 아직도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은 곳이다.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 원정대’(대장 김홍빈)가 대륙 탐험의 출발점인 패트리어트 힐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출국 17일 째인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0시10분(현지시각). 계획된 일정보다 11일이나 늦은 시점이었다.

왕복 4만 7,500km, 비행기만 열번 갈아타

날씨 맞아야 출발…원정기간 70% 대기시간

원정대는 당초 미국 LA와 칠레 산티아고를 거쳐 2만km가 넘는 비행끝에 남미 최남단의 도시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에 도착해 12월 14~15일 ANI의 장비 점검과 브리핑을 거쳐 대륙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출발 예정일(16일)을 그냥 넘기고부터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다. 푼타 아레나스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착륙 지점인 패트리어트 힐의 기상 조건과 맞아떨어져야 했다. 착륙 조건은 ‘풍속 15노트 이하’여야 하고 청빙지대인 활주로에 눈이 쌓이지 않아야 했다. 이륙은 불과 반나절 전 혹은 몇 시간 전에야 결정된다. 이 때문에 대원들은 매일 오전 6시30분과 9시30분, 오후 4시30분 세 차례 ANI 매니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기다리며 항상 숙소에서 ‘5분 대기조’ 마냥 머물러 있어야 했다. 모든 장비를 꾸려 푼타 아레나스 공항까지 나가 대기하다 돌아오는 경우도 두 차례나 있었다.

푼타 아레나스는 ‘파타고니아의 수도’라고도 불린다. 산악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그 품에 안기기를 꿈꾸는 파타고니아 산군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파타고니아 3대 암봉 가운데 세레토레와 피츠로이는 아르헨티나에 속해 있지만 파이네 암봉(Torres Del Paine)은 푼타 아레나스에서 불과 네 시간 거리의 칠레 땅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비행기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판에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도 포기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헤살꾼은 남극의 강한 바람이었다. 행여나 기대하며 날마다 전화 통화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Still not good. Too windy’였다.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남극 땅에 발을 디뎌 보지도 못한 채 돌아서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서야 마침내 기회가 왔다. 12월 26일 오후 4시30분 ‘바람 잘날 없는 도시’ 푼타 아레나스 거리를 휩쓰는 강풍으로 미뤄 오늘도 허탕이라고 지레 포기할 무렵 출발을 알리는 전화가 왔다. 공항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마치고 활주로에 우뚝 선 일루신 수송기를 마주하자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오후 7시30분 각 국에서 온 빈슨 원정팀 38명과 남극점 도전에 나선 10여명, 스태프를 포함 50여명을 태운 수송기가 이륙을 시작한 순간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남극에 들어간다는 안도의 탄성이었다. 수송기는 마젤란(Magellan) 해협과 베링스하우젠(Bellingshausen) 바다를 거쳐 대륙 서부로 진입했다. 2천900km를 4시간30분만에 날아 패트리어트 힐 얼음 활주로의 돌풍을 뚫고 안착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 때뿐이 아니었다. 패트리어트 힐과 베이스 캠프에서도 등반 전과 후 비행 일정 때문에 1주일 가까이 하릴없이 머물러야 했다. 한 달간의 원정기간 중 7할은 ‘제발, 좋은 날씨를!’ 염원하는 기도와 기다림의 나날이었다.

‘남극 대륙에 도착하기까지가 대륙의 최고봉을 오르는 일보다 어렵다’는 7대륙 최고봉 등정자 패트릭 머로우(Patric Morrow)의 말이 그토록 실감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남극은 멀고도 먼 제7의 대륙이었다.

/글·사진=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